

이그잭스, 타이완과 태양전지 소재 합작

엑셈트에 메탈 페이스트 기술·자본 제공 ... 2011년 상업생산 본격화

디스플레이용 화학약품과 인쇄전자 전문기업인 이그잭스는 타이완 엑셈트에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월4일 발표했다.

이그잭스는 전기에너지를 모으는 전극을 형성할 수 있도록 태양전지 표면에 막을 씌우는 핵심소재인 메탈 페이스트 관련 기술과 자본을 엑셈트에 제공한다.

엑셈트는 타이완의 주요 태양전지 생산기업과 일본 도시바 주도의 컨소시엄인 TSEC 60%, 이그잭스 24%, 기타 주주가 16%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11년부터 타이완 신주공업단지에서 메탈페이스트를 양산하기 시작해 최초의 기술 이전비와 매출액의 4%를 로열티로 이그잭스에 주게 된다.

엑셈트는 2013년까지 생산능력을 1800톤으로 늘려 중화권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0%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그잭스 조근호 대표는 “태양광용 메탈페이스트는 2013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타이완 진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04>